

## 광주 40.1도·27일 연속 폭염... 이런 여름 없었다

### 기록으로 본 광주·전남 폭염

입추(立秋)가 무색하게 광주·전남이 여전히 폭염으로 찜뭉들고 있다.

7일 광주와 전남 일부지역에 소나기가 내렸지만, 폭염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관련기사 6·7면>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말복인 오는 16일까지 예보된다. 열대야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올 여름 폭염은 모든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폭염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온열질환 사망자 등 인명피해와 전남지역 농수축산 분야 피해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폭염 기록 연일 갈아치워=7일 광주지방 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폭염은 지난 12일부터 시작해 무려 27일째 이어지고 있다.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27일 연속되고 있는 것이다.

밤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도 지금까지 광주 19일, 여수 21일째 나타나고 있다.

올 여름 광주·전남 평균기온도 1939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 이번 여름철(6월1일~ 8월5일) 광주의 평균기온은 26.4도, 평균 최고기온은 31.9도를 찍었다.

이는 기상청 관측 이래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꼽혔던 1994년의 평균기온(26.2도), 평균 최고기온(31.8도)보다 각각

역대 최악 1994년 최고기온 등 기록 대부분 갈아치워

16일 말복까지 지속... 사망 5명·가축 어류 피해 40억

각 0.2도, 0.1도 높다.

주요 지점별 역대 하루 최고기온도 지난 달 27일 광주가 38.5도를 기록하면서 지난 1994년도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다. 비공식적으로는 지난 1일 오후 4시 6분께 서구 풍암동이 40.1도를 기록했다. 광주·전남 평균 폭염일수는 이날 현재 17.8일로, 1994년 18.6일에 못 미친다. 하지만, 폭염이 당분간 지속된다면 평균 폭염일수도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여름철(7월1일~8월5일) 비가 오지 않은 무강수 일수(無降水日數, 비가 내리지 않은 일수)도 30일을 기록, 역대급에 포함됐다. 기상청은 이번 무강수 일수는 관측 이래 가장 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7일 광주와 전남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내렸지만, 짧은 시간 내린 탓에 폭염을 누그러트리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낮 최고기온은 광주 풍암 38.6도, 곡성 옥과 37.4도, 함평·나주 36.9도, 영암 확산 33.1도 등 여전히 높은 기온을 보였다.

◇폭염 누적 피해 눈덩이=온열 질환자는 이날 전남에서 7명 추가돼 지금까지 241명이 발생했으며, 이중 4명이 숨졌다. 광주에서는 이날 첫 사망자가 나왔으며, 전국적으로는 40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

다. 38도가 오르내리는 폭염으로 전남에서만 이날 하루만 4만8000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누적 피해 규모는 406농가 70만 2000마리, 피해액 27억3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고수온에 따른 양식장 피해는 장흥·고흥에서 넓치 11만6000마리가 떼죽음을 했다. 어류 피해는 지금까지 5여가 45만6000마리의 넓치가 폐사했고, 피해액은 10억 2300만원에 달했다.

농작물 피해는 25ha가 추가돼 10개 시·군에서 100ha(121.5ha)를 훌쩍 넘어섰다. 대부분 강한 햇볕에 의한 데임현상으로 과수 80.4ha, 채소 11.5ha, 밭작물 3.4ha, 특용작물 26.2ha 등이다.

기상청은 말복인 오는 16일까지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말복까지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의 동풍이 불면서 폭염의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면서 "밤에도 기온이 크게 낮아지지 못해 열대야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저기, 가을이 오고 있어요" 입추인 7일 광주 낮 최고기온이 36.6도를 기록한 가운데 광주시 북구 매곡동 김용학 가족(광주시 지정 민속자료 3호) 앞에서 시민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백일홍의 붉은자태를 감상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현 중3부터 정시모집 확대 2022 대입 개편 권고안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현재 중 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늘리자'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관련기사 7면>

국가교육회의는 그러나 수능위주 전형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수능위주의 정시전형보다, 학교생활 기록부 위주의 수시전형 확대 기조였다는 점, 국가교육회의가 수능 전형 확대는 점에 비해 수능 전형 확대 비율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 해석이 나온다. 국가교육회의는 수능평가 방법과 관련해서는 현행처럼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를 권고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시민참여단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개편 특별위원회가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가 심의·의결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관심이 뜨거웠던 선발방법·비율과 관련해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정하지 않고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산업대·전문대·원격대 등 설립 목적이 특수하거나, 학생수 감소로 충원난을 겪는 대학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적용 제외 대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수능 위주 전형 선발 비율 확대 권고한 이유에 대해 '공론조사 결과 시민참여단이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를 2019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4년제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20.7%다.

국가교육회의는 수능 평가방식은 현행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 외에 제2외국어/한문을 절대평가로 바꿀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국어, 수학, 탐구영역은 상대평가로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수능 과목구조, EBS연계를 등 세부 사항을 조정해 이달 말 2022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 발표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전기요금 가구당 평균 1만원 줄어든다

### 8월 고지서에 적용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올 여름철(7~8월) 주택용 전기요금을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감해줄 것으로 했다. <관련기사 3·14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폭염 대책 회의를 갖고 주택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kWh 올리기로 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당정협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올라간다. 이를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총액이 2761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당정은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

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또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에도 당정은 합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로 확대한다"며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식습관 바로잡고 메타그린으로 건강 더하기**

VITALBEAUTIE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건강기능식품  
녹차추출물, 비타민 C  
50.4g [560mg X 90정]

V-B

## 입은 즐겁게 몸은 가볍게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식습관을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죠. 이제, 하루 한 번 메타그린 습관도 시작해보세요.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줘 무너진 신진대사를 바로잡아줍니다.

건강한 아름다움의 시작  
**VITALBEAUTIE**

제품상담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